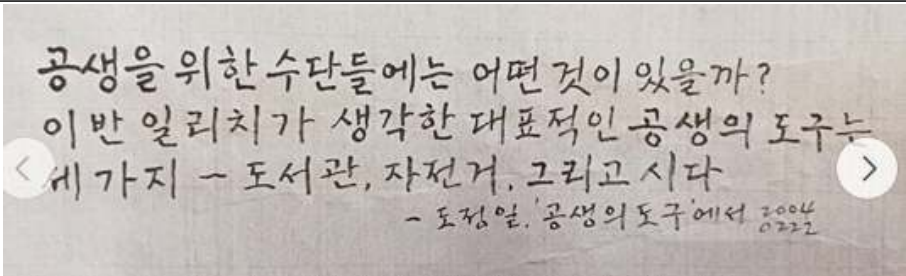


출판기획서

제목(가제)	도서관을 읽고 쓰다; 도서관정신을 필사하다 (가제)
분야	도서관
주제	도서관 철학/역사/정책/운영 등 도서관 전반
기획의도	도서관에 대한 개인이나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고, 관련한 책들도 다수 출간되고 있지만, 정작 우리에게 도서관은 어떤 곳이고, 의미를 가진 공공기관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토론하는 일은 많지 않다. 그래서 도서관을 사랑하는 모든 시민과 도서관 관계자 등이 함께 공유하면 좋은 도서관 관련한 철학이나 역사와 관련한 문장들을 모아 이를 필사하면서 다시금 확인하고 사회적 논의 확산의 계기로 삼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도서관에 관한 의미있는 문장들을 모아 필사책으로 만들어 보고자 한다.
예상 독자	도서관을 생각하는 모든 시민과 저자, 독자와 함께 독서/도서관/출판/서점 분야 관계자
핵심 콘셉트	1. 도서관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철학적, 사회적 의미를 담은 문장을 모아 묶었다는 점이 핵심이 될 것이다. 2.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합의의 근거를 단단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바람직한 도서관 정책과 실천의 계기와 구체적 행동을 조직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경쟁도서	기존 다양한 주제와 유형의 필사책들이 경쟁의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주제의 관점에서 보면 첫 책이 될 것이다.
차별화 요소	1. 도서관과 관련한 문장 모음 2. 지금 우리 도서관과 관련한 생각거리와 토론 이슈를 제공한다. 3. 현재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거나 도서관에서 활동하는 저자 등 활동가들이 선정한 문장으로 선정 이유까지를 포함해 독자들이 읽고 필사를 하면서 도서관에 관해 더 넓고 깊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목차	1. 1부는 핵심적으로 챙겨야 할 주요 문건(도서관인 윤리선언, 기적의도서관 설립 취지 등)을 선정해 수록하고, <u>쟁길 주요 문건도 추천 받음</u> 2. 여러 분들이 선정 추천한 문장은 2부로 한 후 원고 모집 후 내용에 따라 구분해 묶어 목차를 작성할 예정 3. 일부 문장은 안찬수 책임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 글씨 활용

	 또는 추천하는 분이 직접 쓰신 글씨를 활용해서 편집
마케팅 포인트	1. 도서관과 사서, 유관 부문 관계자 2. 도서관을 사랑하는 일반 독자 3. 도서관 행사나 선물용으로도 판매 가능 4. 수집된 문장을 활용한 각종 굿즈, 달력(일력 등), 게시용 포스터 제작 활용 등과 각종 행사 때 전시, 관련 프로그램 기획 추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 가능
저자소개	1. 기적의도서관 관장과 사서 2. 책읽는사회문화재단 활동에 참여하는 저자나 활동가 3. 도서관 부문 일꾼이나 활동가 등 <u>저자로 모실만한 분들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u>
검토사항	1. 고른 문장에 대한 저작권 처리 문제 2. 문장을 골라 소개해 준 저자들에 대한 사례 문제 3. 편집과 출판을 담당할 편집자/출판사 섭외
추진일정	2025.5.10.까지 문장 수집 2025.6.30.까지 편집 2025.7.31.까지 제작 (소셜펀딩 동시 진행 가능)
기타 사항	1. 소요비용은 제작 단계에서 확인하고 부담 방안 모색 2. 소셜펀딩(텀블벅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1부에 포함할 문장]

- 여기에 더해서 추가할 문건이나 문장을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도서관인 윤리선언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인 윤리선언

도서관인은 인류의 기억을 전승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도서관활동의 주체로서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정보 접근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책무를 찾는다.

이에 우리 도서관인은 스스로의 직업적 소명을 다짐하고 전문직의 긍지를 튼튼히 하고자 우리가 실천해야 할 윤리 지표를 세워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도서관인은 도서관 이용자의 신념, 성별, 연령, 장애, 인종,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그 이용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2. 도서관인은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의 편견을 배제하고 정보접근을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을 반대한다.
3. 도서관인은 도서관서비스 과정에서 수집되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를 적극 보호한다.
4. 도서관인은 직업적 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응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5. 도서관인은 지식재산권을 존중하여 도서관서비스에 있어서 이용자와 권리자 간 이해의 균형을 추구한다.
6. 도서관인은 직업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개인의 관심에 우선하여 도서관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1997.10.30. 제정

2019.02.28. 개정

2. 기적의도서관 설립취지

(1) 이 나라의 모든 어린이는 밝게, 바르게, 자유롭게 자랄 권리를 갖습니다. 어린이는 차별과 불평등에 시달리지 않을 권리, 부당하게 억눌리지 않을 권리, 그늘진 곳으로 내몰리지 않을 권리를 갖습니다. 어린이는 온갖 새로운 것들에 이끌리고 신기한 것들에 매혹될 권리를 가집니다. 어린이는 미래를 물수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는 빈곤과 사회적 무관심 때문에 혼자 골목을 돌며 우는 아이들이 백만 명이 넘고,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여러 불행한 조건 때문에, 혹은 어른들의 틀린 욕심에 발목 잡혀서, 자유로운 성장의 권리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담 없이 책을 사줄 수 있는 부모와 가정도 결코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일은 사회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린이들에게 정당한 성장의 권리를 보장하고 꿈과 희망을 키울 기회의 평등을 확대해주어야 하며, 가능한 한 최선의 창조적 성장환경과 최선의 봉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는 바로 그런 기회, 환경, 봉사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민간방송,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전국 여러 지역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어린이 전용 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2) ‘기적의 도서관’은 책의 세계가 펼쳐주는 무한한 상상과 창조의 나라로 어린이들을 초대합니다. 이 도서관 문으로 들어오는 순간 어린이들은 신기한 책나라의 여행자, 탐험가,

발견자가 됩니다. 이 도서관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어떤 차별도 불평등도 없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은 아이들을 길들이려는 또 다른 훈육과 경쟁의 장이 아니라 어린 혼들이 맘 놓고 춤출 수 있는 즐거운 쉼터, 매혹의 땅, 만남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어린이들은 세계를 만나고 타인을 발견하고 자연과 초자연에 대면하며 온갖 아이디어들과 조우합니다. 이곳에서 어린이들은 과거의 얼굴들을 익히고 미래의 파도소리를 듣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은 어린이들이 자유로운 상상과 탐험과 발견의 기쁨을 경험하며 자랄 수 있도록 정성껏 도우려고 합니다.

(3) ‘기적의 도서관’은 우리 어린이들이 정신의 확장을 성취하는 상상력 넘치는 인간, 남을 이해하고 동정할 줄 아는 따스한 가슴의 인간으로 자랄 수 있게 도우려 합니다. ‘기적의 도서관’은 우리 어린이들이 자연과 인간을 함께 아끼고 모든 생명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생의 윤리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이 도서관은 우리 어린이들이 더불어 사는 길의 정의로움을 알고 실행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게 도우려고 합니다. 이 도서관은 우리 어린이들이 세계의 여러 다른 문화와 다양한 가치와 삶의 방식들을 존중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인간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4) 각 지역에 세워지는 ‘기적의 도서관’은 어린이들이 자기 고향의 문화와 역사에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어린이들은 자기 고향의 노랫가락과 춤사위, 자기 고향의 언어와 이야기와 소리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은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의 어른 사회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선의 성장환경과 최선의 봉사가 제공될 때에만 어린이들은 어른 사회를 신뢰하고 자기 고향에 긍지를 갖습니다. 이런 긍지와 신뢰는 그들에게 높은 자신감을 심어주어 장차 그들 스스로 좋은 사회를 만드는 일에 나설 수 있게 합니다. 각 지역 ‘기적의 도서관’은 어린이들이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적의 도서관’은 아이들에게 영원한 고향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야만 이 도서관을 다니며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어느 다른 곳에 가서 살게 되더라도 언제나 이 도서관을 기억할 것이며, 고향 방문길에는 꼭 이 도서관에 들러 그들이 읽으며 자란 어린 시절의 책들을 다시 찾아보면서 성장시대로 되돌아가보는 즐거운 추억제(追憶祭)의 한 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추억여행이 그들의 고향 방문을 완성합니다.

(5) *이하의 생략*

3. IFLA-UNESCO 공공도서관선언

2022 IFLA-UNESCO 공공도서관 선언

(IFLA/UNESCO Manifesto for the Public Library 2022)

2022년 7월 제87차 세계도서관정보(WLIC)대회에서 IFLA/UNESCO 공공도서관 선언 개정판이 발표되었다. 이 선언은 1994년의 공공도서관 선언을 오늘날 공공도서관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이 새로운 선언을 작성 발표하였다.

자유와 번영, 사회와 개인의 발전은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이다. 이는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고 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보에 정통한 시민들의 능력을 통해서만 달성될 것이다. 건설적인 참여와 민주주의의 발전은 지식, 사상, 문화, 정보에 대한 제한 없는 자유로운 접근뿐만 아니라 만족스러운 교육에 달려있다.

지식의 지역 관문인 공공도서관은 개인과 사회 집단의 평생학습, 독립적 의사결정, 문화적 발전을 위한 기본 조건을 제공한다. 그것은 상업적, 기술적 또는 법적 장벽 없이 과학적 및 지역적 지식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지식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지식 사회를 뒷받침한다.

모든 나라에서, 그러나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도서관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지식 사회와 공동체의 문화적 삶에 대한 교육과 참여에 대한 권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선언문은 공공도서관에 대한 유네스코의 믿음을 교육, 문화, 포용, 정보를 위한 살아있는 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주체, 그리고 모든 개인의 마음을 통한 평화와 영적 복지의 개인적 성취로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유네스코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도서관 개발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은 모든 종류의 지식과 정보를 사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정보의 중심지이다. 그것은 지식 사회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며, 모든 사람에게 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제공하고 의미 있는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그들의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에 적응한다. 지식 생산, 정보 및 문화의 공유 및 교환, 시민 참여 촉진을 위해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창조자로, 새로운 청중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효과적인 경청을 사용하여 지역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서비스의 설계를 지원한다. 대중의 도서관에 대한 신뢰에의 보답으로, 그들의 지역사회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인지하는 것이 공공도서관의 지향점이다.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는 나이, 민족, 성별, 종교, 국적, 언어, 사회적 지위 및 기타 특징에 상관없이 모두를 위한 접근의 평등에 기초하여 제공된다. 어떤 이유로든 일반 서비스와 자료를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언어적 소수자, 장애인, 디지털 또는 컴퓨터 기술 부족, 문해 능력 부족, 병원, 교도소에 있는 사람)를 위해 특정 서비스와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모든 연령층은 자신의 필요에 맞는 자료를 찾아야 한다. 장서와 서비스는 전통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적절한 미디어와 현대 기술을 포함해야 한다. 높은 품질, 지역적 요구와 여건과의 관련성, 지역사회의 언어와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은 기본이다. 물질은 인간의 노력과 상상력에 대한 기억뿐만 아니라 현재의 추세와 사회의 진화를 반영해야 한다.

장서와 서비스는 어떠한 형태의 이념적, 정치적, 종교적 검열이나 상업적 압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도서관의 사명

정보, 읽고 쓰는 능력, 교육, 포용력, 시민 참여 및 문화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핵심 임무가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요 임무를 통해 공공도서관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보다 평등하고 인간적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의 건설에 기여한다.

1. 검열에서 자유로운 광범위한 정보 및 아이디어에 대한 접근 제공, 모든 수준의 공식 및 비공식 교육 및 평생학습 지원, 삶의 모든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속적이고 자발

적이며 능동적인 지식 추구를 가능하게 한다.

2. 개인의 창의적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상상력, 창의력, 호기심 및 공감을 자극한다.
3. 출생부터 성인까지의 독서 습관을 조성하고 강화한다.
4. 지식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를 갖추는 정신으로 읽고 쓰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문해력 활동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모든 연령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미디어 및 정보 이해력과 디지털 이해 능력의 개발을 촉진한다.
5. 가능할 때마다 정보, 수집 및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직접 또는 원격으로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6. 모든 사람이 모든 종류의 커뮤니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사회 구조의 핵심에 있는 도서관의 역할을 인식하여 커뮤니티를 조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7. 사용자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 결과 및 건강 정보와 같은 과학적 지식에 대한 접근 기회를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과학적 진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8. 지역 기업, 협회 및 이익 단체에 적절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9. 지역 및 토착 데이터, 지식 및 유산(구전 포함)의 보존 및 접근, 지역사회가 커뮤니티의 희망에 따라 캡처, 보존 및 공유할 자료를 식별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10. 문화간 교류 촉진 및 문화적 다양성을 수락한다.
11. 문화적 표현과 유산에 대한 보존과 의미 있는 접근, 예술의 감상, 과학적 지식, 연구와 혁신에 대한 개방적인 접근, 그리고 디지털화된 그리고 타고난 디지털 자료를 촉진한다.

재원, 법률 및 네트워크

공공도서관 건물 및 서비스의 출입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공공도서관은 지역 및 국가 당국의 책임 아래 있다. 그것은 국제 조약과 협정에 맞춘 구체적인 최신 법률에 의해 지원되어야 한다. 그것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자원 조달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문화, 정보제공, 문맹 퇴치 및 교육을 위한 모든 장기적인 전략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여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법률은 공공도서관이 물리적 자원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조건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조달하고 액세스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해야 한다.

전국적인 도서관 조정과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과 전략 계획은 합의된 서비스 표준에 기초하여 국립도서관 네트워크를 정의하고 촉진해야 한다.

공공도서관 네트워크는 국립, 지역, 연구 및 특수 도서관뿐만 아니라 학교, 대학, 대학의 도서관과도 연계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운영 및 관리

지역사회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목표, 우선순위 및 서비스를 규정하는 명확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 지식과 지역사회 참여의 중요성은 이 과정에 가치가 있으며, 지역사회가 의사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효과적으로 조직되어야 하고 전문적인 운영 기준이 유지되어야 한다.

서비스는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이 물리적으로 또는 디지털 방식으로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치 및 설비가 잘 갖춰진 도서관 건물, 좋은 독서 및 학습 시설, 관

런 기술과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개방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은 도서관을 방문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포함한다.

도서관 서비스는 소외된 집단, 특별한 요구를 가진 사용자, 다국어 사용자 및 지역사회 내 원주민의 요구뿐만 아니라 농촌 및 도시 지역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사서는 사용자와 자원 사이의 능동적 중개자이며, 디지털과 전통 모두를 아우른다.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현재와 미래의 도전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사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충분한 자원에 대한 양적, 질적 정의에 대해 도서관 전문가들과 리더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주민에 대한 확대 봉사 및 사용자 교육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모든 자원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연구는 도서관이 정책 입안자에게 주는 사회적 이익을 입증하기 위해 도서관 영향 평가와 데이터 수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사회 내 도서관의 영향 또는 효과는 종종 다음 세대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통계 데이터는 장기적으로 수집되어야 한다.

협력 관계

도서관이 다양한 대중들에게 폭넓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 그룹, 학교, 비정부기구, 도서관 협회, 기업 및 기타 전문가와 같은 관련 기관 및 인적 자원의 협력이 보장되어야 한다.

선언의 이행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 차원의 의사 결정권자와 전 세계 도서관 공동체는 이 선언에 명시된 원칙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부 각 문장별 페이지 구성을 위한 추천 예시1]

[문장]

이 법은 도서관이 국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여 지식문화 선진국을 창조하는 데 중요한 기반시설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도서관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출처: 「도서관법」 제2조(기본이념)]

[고른 이유]

우리나라에서의 모든 도서관 활동은 「도서관법」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과 관련된 누구나, 이 법률을 잘 알고 이해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서관법」이 제정된 때는 1963년 10월 28일이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국가를 만들었고, 국립도서관(이후 국립중앙도서관)과 몇몇 도서관이 존재했음에도 이러한 도서관 운영의 기반이 되는 법률 제정은 해방하고도 무려 18년이나 늦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 법률이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현재의 「도서관법」은 기존 법률을 상당히 고쳐 2022년 12월 8일 새롭게 시행된 것이다. 기본이념은 이번 법에 처음으로 포함된 것이다. 도서관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방향성과 내용성을 담은 기본이념이기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다. (600자 이내) /

[고른 사람]

이용훈

도서관문화비평가, 사서이자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 도서관 사서로 활동하다가 은퇴했다.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에서 일하다가 한국도서관협회로 옮겨 20여 년 도서관 정책 분야에서 일했다. 전국사서협회 활동도 했었고,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에도 참여해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에 함께 했다. 서울시 광역대표도서관인 서울도서관 건립추진반장과 관장으로 어공 생활을 하기도 했다. 은퇴 후에는 한국도서관사연구회 결성과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연구회 부설 출판사(도연문고) 대표이기도 하다. 도서관 역사 발굴과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첫 번째 ‘이병목 참사서상’을 받기도 했다. (300자 이내)

[2부 각 문장별 페이지 구성을 위한 추천 예시2]

[문장]

책을 쓰는 것은 도서관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순전한 저항 행위다. 기억의 지속성을 믿는다는 선언이다.

세네갈에서는 누군가의 죽음을 예의 있게 표현할 때 그 혹은 그녀의 도서관이 불탔다고 말한다. [출처: 도서관의 삶, 책들의 운명 (수전 올리건, 글항아리) 120쪽]

[고른 이유]

한 사람이 살다가 담긴 무너처럼 수 많은 경험과 선택속에 놓였었던 일들은 후에 그에 대한 기억이자 그에 대한 색깔과 모양과도 같으니 그 과정이 도서관을 닮았기에 이 문장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600자 이내) /

[고른 사람]

박소희

인천 연수구에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합니다.

이제 30여년을 채워가며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함께 보았던 책들이 도서관 서가를 채우고 있습니다.

언제나 작은도서관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재미있는 작당을 하였기에 이 일을 선택하고 가고 있음이 행복합니다.

(300자 이내)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안찬수 사무처장 추천 문장]

1.

도서관 없는 나라가 민주주의를 하고 지식정보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거짓말이거나 망상이다. 공공도서관은 정치적으로 필요하고 사회문화적으로 필수적이며 경제적으로도 불가결하다.

-도정일, 공공도서관 확충이 필요하다, 한겨레 2001.11.19.

2.

책 읽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적 문화 향수권의 하나이다. 그것은 알권리이고 지식에의 접근권이며 문화 민주주의의 조건이다.

-도정일, ‘책 읽는 사람들’의 사회, 출판문화 2001.5.23.

3.

책맹은 문맹과는 다르다. 문자를 모르는 것이 문맹이다. 그러나 문자도 알고 높은 교육도 받았고, 그래서 책을 읽자면 읽을 수도 있지만 죽지 못해 읽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 읽기 싫고 책 읽을 줄 모르는 것이 책맹이다.

-도정일, 책맹사회, 씨네21 2001.6.19.

4.

책 없이도 인간은 기억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표현한다. 그러나 책과 책 읽기는 인간이 이 능력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데 중대한 차이를 낸다.

책을 읽는 문화와 책을 읽지 않는 문화는 기억, 사유, 상상, 표현의 층위에서 매우 다른 개인들을 만들어내고 상당한 질적 차이를 가진 사회적 주체들을 생산한다.

책의 세계는 정신의 자기 회귀를 강화하는 고독한 성찰과 불안한 의심의 극장, 의식이 의식을 만나 협상하고 교섭하는 대화의 극정, 인간이 유한성의 조건 속에서 그 유한성에 보복할 모든 가능한 책략들을 꾸미는 음모의 극장이다.

-도정일, 고독한 성찰과 불안한 의심의 극장, 교수신문, 2008. 1. 29.

5.

동네 도서관은 무엇보다도 시민의 사회적 능력 중에 기본이 되는 잘 읽고 잘 쓰고 정보를 다루는 능력, 이른바 ‘리터러시’의 요람이다. 이 리터러시가 부단히 강화되는 곳에서만 판단력을 가진 시민, 책임 있는 사회인, 유능한 경제인 나온다.

-도정일, 보르헤스의 천국과 도서관, 한겨레, 2006.1.20.

6.

공생을 위한 수단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반 일리치가 생각한 대표적인 공생의 도구는 세 가지--도서관, 자전거, 그리고 시다.

-도정일, 공생의 도구, 중앙도서관 2004.2.22.

7.

공공도서관은 사회의 토대시설이고 이 시설은 주민들의 생활권 안에 있어야 한다.

-도정일, 소년 완서의 도서관, 씨네21. 2002.2.12

8.

그날 오래도록 자리를 뜨지 못한 설계자 정기용의 마음을 나는 안다. 개관과 함께 설계자는 건물을 넘기도 떠나야 한다. 지난 몇 달 퍽없이 적은 경비와 시간 제약 속에서 설계 아이디어를 살려내기 위해 밤새우며 작업해온 현장소장, 시공자, 관리자 들도 떠나야 한다. 그들의 땀과 노심초사를 사람들은 기억해줄까? 그들이 장차 도서관에 들렀을 때 직원들은 “누구시죠?” 라고 묻지 않을까? “개관식 때 우리는 참 쏠쏠합니다.” 시공회사 유탑엔지니어링의 현장소장 모득풍씨의 말이다. 쏠쏠했을 사람들이 어찌 그뿐이라. 쏠쏠한 사람들이여, 쏠쏠함에 이끌려라. 삶은 결국 쏠쏠함의 길이가 아닐 것인가? 오 쏠쏠함이여, 그대도 인생의 진실 하나를 보게 하는구나.

-도정일, 오, 쏠쏠함이여, 스승이여. 경향신문 2003. 11.12.